

한국 청년 방문단(제6~8단) 초청 사업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개요】 ‘일본 이해 촉진 교류 프로그램(JENESYS2025)’의 일환으로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에서 선발된 고등학생 등 81명이 2월 3일부터 11일까지 앞으로의 일한 간 상호 이해와 신뢰 관계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방일하였습니다. 방일단은 ‘일한 교류와 일본의 평화 교육’이라는 테마로 오키나와현을 방문해 강의 청강, 학교방문, 홈스테이, 각종 시찰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그램 기간 중의 배움과 방문지의 매력에 대해 SNS 등으로 발신하였습니다.

【참가자】 한국 고등학생 등 총 81명

【방문지】 오키나와현 총 81명

【일정】

■ 사전 프로그램 (온라인 사전 학습):

1월 24일(토) 오리엔테이션(프로그램 설명), 참가자들의 대외 발신

■ 초청 프로그램:

2월 3일 (화) 나하 공항 입국

<제7단>

【강의·시찰】 오키나와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사례

<전단 공통>

일본 방문 시 오리엔테이션

2월 4일 (수) <전단 공통>

【강의】 외무성 ‘최근의 일한 관계에 대하여’, 【예방】 오키나와현 교육청,

【강의】 ‘오키나와현의 매력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시찰·교류】 슈리성(오키나와 중고등학생들이 만든 가이드와 함께)

2월 5일 (목) <제6단>

【시찰】 히메유리의탑, 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평화 강연 포함), 오키나와현 평화기념공원(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 평화의 초석 등)※해설사와 함께

<제7단>

【학교 방문·교류】 오키나와현립 마에하라 고등학교

<제8단>

【시찰·체험】 요미탄손 내 평화 학습(지비치리 가마 및 시무쿠 가마 시찰),

【시찰·체험】 평화에 관한 토론 ※해설사와 함께

- 2월 6일 (금) <제6단>
【시찰·체험】 요미탄손 내 평화 학습(지비치리 가마 및 시무쿠 가마 시찰),
【시찰·체험】 평화에 관한 토론 ※해설사와 함께
 <제7단>
【시찰】 오키나와현 평화기념공원(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 평화의 초석 등),
 히메유리탑, 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평화 강연 포함)※해설사와 함께
 <제8단>
【학교 방문·교류】 오키나와현립 가데나 고등학교
 <전단 공통>
【교류】 홈스테이 대면식
- 2월 7일 (토) 종일 홈스테이
- 2월 8일 (일) <전단 공통>
 홈스테이 해산식, **【시찰】** 류큐무라
- 2월 9일 (월) <제6단>
【학교방문·교류】 오키나와현립 우라소에 고등학교
 <제7단>
【시찰·체험】 요미탄손 내 평화 학습(지비치리 가마 및 시무쿠 가마 시찰),
【시찰·체험】 평화에 관한 토론 ※해설사와 함께
 <제8단>
【시찰】 히메유리탑, 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평화 강연 포함), 오키나와현 평화 기
 념공원(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 평화의 초석 등)※해설사와 함께
- 2월 10일(화) <전단 공통>
【교류】 한국어 학습자와 나하 시내 필드워크
 <제6·8단>
【강의·시찰】 오키나와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사례
 <제7단>
 액션 플랜·소감 발표회
- 2월 11일 (수) <제6·8단>
 액션 플랜·소감 발표회
 <전단 공통>
 나하 공항 출국

2. 기록사진

	
<p>2월4일 【예방】 오키나와현 교육청</p>	<p>2월4일 【시찰·교류】 슈리성(오키나와 중고교생들의 안내와 함께)</p>
	
<p>2월5일 【학교방문·교류】 오키나와현 마에하라 고등학교(제7단)</p>	<p>2월5일 【시찰·체험】 요미탄손 내 평화 학습(지비치리 가마 및 시무쿠 가마 시찰)</p>
	
<p>2월6일 【학교방문·교류】 오키나와현립 가데나 고등학교(제8단)</p>	<p>2월6일 【시찰】 오키나와현 평화기념공원(평화의 초석 시찰)</p>
	
<p>2월6일 【시찰】 히메유리탑</p>	<p>2월7일 【교류】 홈스테이 교류 모습</p>

<p>2월8일 【교류】 홈스테이 해산식 모습</p>	<p>2월9일 【학교방문·교류】 오키나와현립 우라소에 고등학교(제6단)</p>

3. 참가자 소감 (발췌)

◆ 한국 고등학생

이번 방일단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역시 오키나와 시민들과의 교류였습니다. 일본에 여행으로 올 기회는 많지만, 이렇게 시민들과 대화하며 오키나와 문화를 배울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방일단을 통해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오키나와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고, 오키나와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한국 고등학생

프로그램 동안 슬픈 역사가 남아 있는 여러 장소를 방문하며 전쟁이 남긴 것에 대해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중에서도 요미탄손에서 진행된 평화 학습에서는 당시 완전히 다른 상황에 있던 치비리리 가마와 시무쿠 가마라는 가마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가마의 생존자로 가정하여 서로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룹워크를 진행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감정이 넘쳐흘렀습니다. 그룹에서 나온 의견 중에 생존에는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이처럼 전쟁이 끝났다고 해도 생존자의 아픔은 오래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주:가마는 전쟁 중 주민들이 피난처로 사용한 자연 동굴. 치비리가마에서는 주민들의 집단 자살사태가 일어났는데 시무쿠 가마로 피난한 사람들은 그러한 참사를 피할 수가 있었다.)

◆ 한국 고등학생

사전 설명회에서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와 오키나와는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유사점이 많다고 들었지만, 실제로 방문해 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았고, 매우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평화 교육에서는 오키나와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배울 수 있었고, 제주 4·3 사건과도 통하는 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방일을 통해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나 외교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해하며 마음을 함께하고 공감하는 것임을 깨달았고, 그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시찰과 교류를 통해 일본어를 사용할 기회도 많아 일본어 실력이 늘어난 것도 매우 기쁩니다.

◆ 한국 고등학생

오키나와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일본 생활 문화를 직접 체험한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어 장벽을 넘는 따뜻한 환대를 받았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과정에서 진정한 한일 우호의 의미를 실감했습니다. 특히 전통 음식을 함께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정은 국경을 초월한 유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4. 일본 측 소감 (발체)

◆ 오키나와현 현립학교 교육과 관계자

2026년 2월 4일, 오키나와현 교육청에서 교육장 예방이 이루어졌으며, 양국의 교육 현황과 과제에 대해 매우 유익한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본현에서는 현립 고등학교 세 곳이 방일단을 맞이하여 하루 체험학습을 실시했습니다. 당일에는 환영회와 예술 과목 등의 체험 수업에 더해, 선물 교환과 버디와의 교류 등 각 학교가 공을 들여 다채로운 배움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에 파견된 방한단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맞이 활동에 참여하며 상호 교류의 의미를 스스로 실천해 준 것은 큰 성과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생들에게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한일 고등학생들이 장차 양국의 우호와 발전에 기여해 나가기 기대합니다.

◆ 오키나와현립 마에하라 고등학교 관계자

이번에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본교 학생과 한국 학생 여러분 간의 교류를 도모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과정에 다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는데, 본교 학생들에게도 한국 문화와 국제 교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류가 양국 학생 개개인에게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고, 미래를 생각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오키나와현립 우라소에 고등학교 관계자 (학생)

이번 한국 여러분과의 교류를 통해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실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뉴스나 이미지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한국 고등학생들의 생각이나 일상을 알게 되어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일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움을 더해 나가고 싶습니다.

◆ 오키나와현립 가데나 고등학교 관계자 (학생)

이번 한국 청년 방일단 여러분과의 교류는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통할지 불안하고 긴장했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문화나 언어가 달라도 제스처 등으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 고등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주고, 열심히 전하려는 모습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일본과 한국에는 공통점이 많고 공감할 수 있는 점이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실제로 한국 고등학생들과 교류하며 한국이 가깝게 느껴졌고,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해서 다음에는 제가 먼저 많이 말을 걸고 싶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귄 것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니다.

◆ 홈스테이 가정

“오키나와에 대해 알고 싶다”며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는 등, 적극적인 아이들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3일 동안 미소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밝고 상냥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타코야키나 오코노미야키로 대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한국 음식을 선보이는 바람에 먹지 못하고 “다음에 또 올 때 먹자!”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고,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기 싫어”라고 말하며 배낭을 메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5. 참가자의 대외발신(발취), 보도자료 등

 <p>JENESYS2025 한국청년방일단 4일차(1)[2/6] 이날은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해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평화에 대한 깊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기념공원에 빼곡하게 적힌 희생자들의 이름을 직접 보면서, 전쟁이 우리와 먼 것 같으면서도 정말 가까이 있다는 것과,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의 삶을 앗아간 절망적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이어 방문한 히메유리평화기념관에서는 당시 우리 또래의 학생들이 겪었던 가슴아프고 끔찍스러운 상황을 생존자들의 증언과 기록을 통해, 오키나와가 겪은 전쟁의 가슴 아픈 역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주할 수 있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평화라는 단어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간단히 보기</p>	 <p>일본의 가정집에서 살아보니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문화의 차이'보다 '사람의 따뜻함'이었다. 언어와 생활 방식은 달랐지만, 매일 웃으며 맞아주고 작은 부분까지 배려해 주는 모습에서 가족과 같은 정을 느낄 수 있었다. 헤어질 땐 크게 울었다 😭</p>
<p>2026년 2월 6일 (Instagram) 이날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해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평화에 대해 깊이 배울 수 있었다. 평화의 초석에 새겨진 희생자 분들의 이름을 보며, 먼 곳에 있는 줄 알았던 전쟁이 가까이 존재하며 역사적 사건이 아닌 수많은 이의 목숨을 앗아간 절망적이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임을 실감했다. 이어 방문한 히메유리평화기념자료관에서는 당시 우리와 또래였던 학생들이 겪었던 가슴 아프고 끔찍스러웠던 상황과,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전쟁의 역사에 대해 생존자의 증언과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평화라는 말은 이상으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p>	<p>2026년 2월 8일 (Instagram) 일본 가정에서 지내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문화 차이'보다 사람의 따뜻함이었다. 언어와 생활 방식은 달라도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웃음을 나누며, 사소한 부분까지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서 진짜 가족 같은 정을 느낄 수 있었다. 헤어질 때는 크게 울었다.</p>



jene000000 jenesys 방탈기록

오키나와에서 치비치리 가마와 시무쿠 가마라는 전쟁 당시 사람들이 피신했던 동굴을 방문했다. 이곳은 오키나와 전투 당시 민간인들이 숨어 지내던 장소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동굴 안에서 극한의 선택을 해야 했던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다. 동굴 내부는 생각보다 좁고 어두워, 그 당시의 공포와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졌다. 설명을 들으며 전쟁이 군인들만의 일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생명까지 앗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책이나 영상으로 보았을 때와는 달리, 실제 그 장소에서 보니 전쟁의 무게가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이번 방문을 통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간단히 보기



Instagram post interface showing a caption in Korean. The caption describes a visit to a high school in Urasoe during the JENESYS 2026 program, mentioning the exchange of letters and the shared experience of studying and living together.

2026년 2월 9일 (Instagram)

치비치리가마와 시무쿠가마라는, 오키나와 전투 당시 사람들이 피신했던 동굴을 방문했다. 이곳은 많은 지역 주민들이 몸을 숨기고 지냈던 장소이며, 집단 자결이라는 아픈 역사를 가진 곳이다. 동굴 내부는 어둡고 좁아서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절박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설명을 들으며 전쟁은 군인들만의 일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생명까지 빼앗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책이나 영상으로 보았을 때와는 달리, 실제 그 장소에서 보니 전쟁의 무게가 더욱 가까이 느껴졌다. 이번 방문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2026년 2월 11일 (Instagram)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우라소에 고등학교에서의 교류는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생생한 소통의 기쁨과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친구로서의 연대감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라소에 고등학교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밝은 미소와 박수로 우리를 맞이해 주던 모두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YouTube video player interface for a video titled '오키나와에서 만난 우정 [똑똑! 한국사회]'. The video features a group of people and a portrait of a young woman, identified as '유시마 | 성신여대 1학년' (Yushima | Sinsin University 1st year). The video content describes a meeting with high school students from Urasoe during the JENESYS 2026 program.

<p>2026년 2월 5일 (NHK 오키나와 뉴스)</p> <p>“한국 고등학생들, 재건 중인 슈리성 견학 현내 고등학생들이 안내” 현내 중·고등학생들이 안내 역할을 맡아 복원이 진행 중인 정전의 모습을 견학하며 교류를 깊게 하는 한편, 오키나와의 역사와 평화에 대해 배운 내용을 소개했다.</p> <p>※본 뉴스는 같은 날 낮·저녁·밤 총 3회의 뉴스에서 방송되었으며, 별도로 웹판에도 게재됨</p>	<p>2026년 3월 4일 (한겨레신문)</p> <p>“오키나와에서 만난 우정”(발췌) 이번 연수는 나의 꿈을 재차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나의 강점인 휠체어의 시선에서 한·일 양국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며, 나아가 한·일 양국을 잇는 가교로 활약하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p>
--	--

6. 보고회에서의 방일성과와 액션플랜 발표 (개요 또는 발췌를 기재함)

<p>【성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이 남긴 상처와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계기가 되었고, 평화란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임을 배웠습니다. • 일본 학생들과 교류하며 문화적 차이와 함께 ‘또래이기에 비슷한 고민과 꿈을 공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 말이 통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제스처나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평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서로 이해할 수 없다고 단념하기 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려는 꾸준한 노력을 계속한다면 언젠가 반드시 평화는 실현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 일본어는 단순한 학습 언어가 아니라 현지인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임을 체감했습니다. •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려 노력 속에서 이루어 진다는 점을 	<p>【성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비치리 가마와 시무쿠 가마를 보며 오키나와에는 관광지라는 화려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키나와전이라는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경험한 공포와 당시의 선택에 관련된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크게 느끼지 못했던 평화의 소중함과 이러한 장소를 기억하고 전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오키나와전에 관한 평화 학습을 통해 오키나와 일반 시민들이 많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역사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의 세계가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좋은 학습이 되었습니다. • 이번 방일에서는 총 4회의 교류 프로그램이 있었고, 세 학교의 고등학생들과도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교류를 통해 일본의 생활 문화와 또래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었을 뿐만
---	---

<p>배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극을 낳는 근본적인 원인은 특정 국민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고 느꼈습니다. <p>【액션 플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수업 시간에 오키나와 전투와 평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 신문사 기고를 통해 한일 우호 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 방일단 경험을 통해 평화에 대해 느낀 점을 SNS에 게시하겠습니다. • 고등학생의 시각으로 본 ‘진짜 오키나와’ 디지털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 게시하겠습니다. • 일본 대학 진학 또는 교환 유학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겠습니다. • 방일단에서 만난 일본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문화 교류를 이어가겠습니다. • 워킹 홀리데이 또는 일본에서의 취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p>아니라,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바로잡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p> <p>【액션 플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경험을 일러스트나 영상으로 정리하여 세계에 발신하겠습니다. • 소속 학교에서 발행하는 학교 신문에 방일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배포하겠습니다. • 일본어능력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 방일 중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깊이 이어나가겠습니다. • 오키나와와 제주의 다양한 공통점을 발굴해 SNS나 블로그, 학교 발표 등을 통해 널리 알고 싶습니다. 특히 오키나와 전투와 제주 4·3 사건 등 슬픈 역사적 공통점에 대해서는 함께 아픔을 공감하며 평화 교육의 내용을 널리 전하고 싶습니다. • 요미탄손에서 자색고구마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나 브랜드 돼지 품종 개발, 한국인 연구자에 의한 시과사, 갯토 등을 비롯한 오키나와 특유의 원재료를 사용한 건강식품 등의 개발 등, 관광이 주산업으로 다른 산업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는 제주에서도 역시 필요한 일이며, 이러한 사례를 조사하여 제주에서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	---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